No. 5 금리·환율 읽는 시간 4분

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질까?

미국 주식의 원화 수익률은 주가와 환율이 함께 만듭니다. 가상의 숫자로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차이를 계산해 정리합니다.

한 줄 결론

원화 수익률은 주가 수익률과 환율 변화율이 곱해져서 나옴

확인할 숫자

산 날 환율, 판 날 환율, 달러 기준 수익률



사진: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, James St. John, Flickr.

목차

1. 미국 주식을 사면 환율이 왜 끼어들까?
2.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만 오르면?
3. 주가가 올랐는데도 손해가 날 수 있을까?
4. 둘 다 오르면 수익은 20%일까?
5. 환율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있을까?
6. 미국 주식을 볼 때 던질 세 가지 질문

> 이 글의 환율, 가격,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 특정 종목이나 환율 전망을 말하는 글이 아니며 매수·매도 권유가 아닙니다.

미국 주식 앱을 열었더니 주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내 수익률이 달라져 있었던 적, 한 번쯤 있을 겁니다. 그날 뉴스에는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는 소식이 있었죠.

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가상의 숫자로 네 가지 경우를 차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

01

미국 주식을 사면 환율이 왜 끼어들까?

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됩니다. 원화로 사려면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, 팔 때는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되돌려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환율(1달러를 사는 데 드는 원화의 값)이 두 번 쓰입니다.

환율이 1,300원이라고 가정하고 1,000달러어치 주식을 산다면 130만 원이 듭니다. 이때 내 돈은 두 곳에 걸려 있습니다. 하나는 주식 가격이고, 다른 하나는 달러의 값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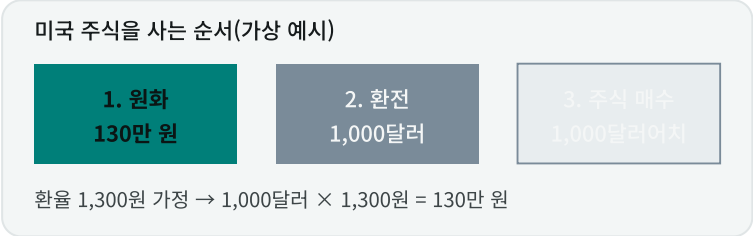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원화가 달러를 거쳐 주식이 되는 순서. 환율과 금액은 설명용 가상 예시임.

이처럼 미국 주식의 원화 수익은 주가와 환율, 두 가지의 합작품입니다.

02

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만 오르면?

먼저 주가가 한 푼도 움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. 환율이 1,300원에서 1,430원으로 10% 올랐다고 하겠습니다. 주식은 그대로 1,000달러어치이니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1,000달러 × 1,430원, 즉 143만 원이 됩니다.



사진: 고무줄로 묶은 100달러 지폐 뭉치, AMagill, Flick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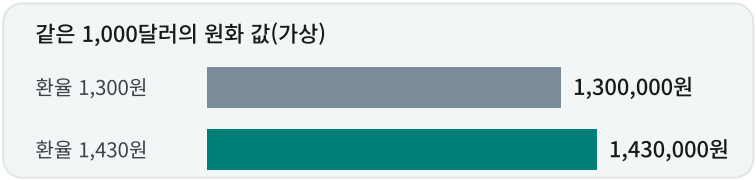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.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10% 오르면 원화 값이 10% 늘어남.

산 돈은 130만 원이니 수익은 13만 원, 10%입니다. 주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환율 덕에 수익이 생긴 셈입니다. 달러 자산의 값이 원화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.

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같은 이유로 손해를 봅니다.

03

주가가 올랐는데도 손해가 날 수 있을까?

있습니다. 주가가 10% 올라 1,100달러가 됐는데 환율이 10% 내려 1,170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. 팔면 1,100달러 × 1,170원, 즉 128만 7천 원입니다. 산 돈 130만 원보다 1만 3천 원 적습니다. 원화 수익률은 마이너스 1%입니다.



그림 3. 달러 기준으로는 수익이어도 환율 하락이 더 크게 작용하면 원화로는 손실이 날 수 있음.

이처럼 달러 기준 수익률이 플러스여도 환율이 그만큼 내리면 원화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. 해외 주식 앱의 수익률이 원화 기준인지 달러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

04

둘 다 오르면 수익은 20%일까?

주가가 10% 오르고 환율도 10% 올랐다면 단순히 더해서 20%일 것 같지만, 실제로는 21%입니다. 두 변화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.

계산해 보겠습니다. 주식은 1,100달러가 되고 환율은 1,430원이 됐으니 팔면 1,100달러 × 1,430원, 즉 157만 3천 원입니다. 산 돈 130만 원으로 나누면 1.21배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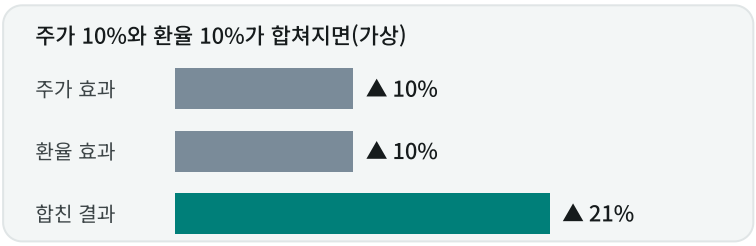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막대 길이는 비율에 비례함. 1.1 × 1.1 = 1.21이므로 합친 수익률은 21%임.

그러니 수익률을 따질 때는 더하지 말고 곱해야 합니다. 이처럼 환율은 주가 수익률을 키우기도, 깎기도 하는 곱셈의 한 축입니다.

05

환율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있을까?

환율은 미리 맞히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.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.



사진: 컨테이너선과 항만 크레인, Bernard Spragg, Flickr.



그림 5. 방법을 정리한 개념도.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환율 흐름에 따라 달라 정해진 답이 없음.

첫째는 한 번에 환전하지 않고 나눠서 바꾸는 것입니다. 둘째는 환헤지(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도록 만든 장치)가 붙은 상품을 보는 것입니다. 다만 이런 상품은 비용이 들고,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일 때의 이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[확인 필요]. 셋째는 내 자산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끔 점검하는 것입니다.

정답은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의 크기에 맞추는 일입니다.

06

미국 주식을 볼 때 던질 세 가지 질문

지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수익률 화면을 볼 때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**"이 수익률은 원화 기준인가, 달러 기준인가?"**
   → 환율 변화가 포함됐는지 따라 같은 주식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.

2. **"산 날과 지금의 환율은 얼마인가?"**
   → 환율이 내렸다면 주가 상승분이 깎입니다.

3. **"내 자산에서 달러 비중은 얼마인가?"**
   → 비중이 클수록 환율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.

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수익률이 달라지는 까닭은 주가와 환율이 곱해져 원화 수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보유 종목의 산 날 환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[담당자 검토]

참고 자료

- 글에 쓴 환율, 주가, 금액, 수익률은 모두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환율이 아님
- 환헤지 상품의 비용과 구조: 각 상품의 투자설명서 [확인 필요: 상품별 확인]
- 환전 수수료와 세금: 이용 중인 증권사 안내 [확인 필요: 현재 수수료율과 과세 기준]
- 사진 3장의 작가·라이선스·출처는 각 사진 아래에 적음(지폐 James St. John, 달러 AMagill, 항만 Bernard Spragg)

분류·태그 금리·환율 #달러 #미국주식 #수익률 계산 #해외투자 #환율

온라인 원문: https://www.stock-diary.kr/p/2026-11-15-fx-us-stocks.html

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(생성형 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.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「참고 자료」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,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, 출처는 본문 캡션과 「참고 자료」에 밝혔습니다. [담당자 검토]